

은행 불완전판매 또 터질라... 소 잃기전 외양간 손본다

국내 코스피지수 한 주만에 1770
고객 가입 투자상품 긴급점검 나서

신한銀, 컨틴전시 플랜 '심각' 격상
KB국민은행, 비상대응체제 가동
하나銀,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공유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투자 상품서비스(IPS)그룹은 지난 10일 금융시장 상황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역과 자산을 불문하고 요동쳤다. 국내 코스피지수는 한 주 만에 2000선에서 1770까지 주저앉았고, 코스닥지수도 20% 가까이 폭락했다. 글로벌 증시 역시 미국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0%나 폭락하기도 했으며, 국제유가는 WTI(서부텍사스유) 기준으로 올해 초 배럴당 60달러 안팎에서

반토막이 났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은행들도 비상대응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개별 주식이나 펀드는 물론 중위험·중수의 상품으로 꼽혔던 가연계증권(ELS) 등도 대부분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한 시중은행 자산관리(WM)부문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미국, 유럽 내 확산이 여전히 빠르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당분간 투자수익률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IPS그룹은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정상-주의-경계-심각'으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 계획)을 운영 중이다. 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하는 시나리오를 사전에 발굴해 모니터링하고, 시나리오 발생시 단계별 사전 자산배분 비중에 따른 비중조절을 권고한다.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시장을 '심각' 단계로 보고, 매일 시장을 모니터링해 영업점 직원들에게 오픈채팅방과 사내 게시물 등으로 상황을 안내하고 있

다. 고객 가입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긴급한 시장·상품 이슈가 발생하면 현장 공지 후 고객들에게 시장상황 및 가입한 투자상품에 대해 매수·보유·매도를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고객상담센터에서도 고객들의 문의에 응대해 고객수익률을 비대면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도 금융투자상품본부 주관으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다. 금융시장 이슈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의 위험도를 점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융연구소의 시황 모니터링과 투자전략부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를 매일 직원들에게 공유해 고객 문의에 응대토록 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지방금융지주 CEO 자사주 매입현황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2020년 3월 6일 2만 1800주 매입 총 5만 6800주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2020년 3월 4일 1만주 매입 총 2만 5000주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2019년 11월 28일 2만주 매입 총 4만 500주
---	--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지주 회장, 자사주 매입 주가·주주가치 제고 안간힘

지주 경영진도 자사주 매입 동참
주총서 주가관련 비판제기 의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방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평가된 주가를 안정시키고 이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서 제기될 주가관련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6일 자사주 2만1800주를 추가 매입했다. 김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는 지난 2018년 5월 첫 매입 이후 5만6800주다. 회장뿐 아니라 지주의 경영진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고 있다. 명형국·박훈기 부사장은 같은 날 나란히 3000주씩 매입하고, 정성재 상무는 지난 11일 4000주를 매입했다.

BNK금융은 지주 차원에서 주가 조정 폭을 줄이기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7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도 지난 4일 자사주 1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취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한 자사주는 총 2만5000주다. 임원진의 자사주 매입도 활발하다. 오성호 전략총괄 상무는 지난 6일 6030주, 김영석 그룹재무담당 총괄(CFO)은 지난 10일 2000주, 신완식 대구은행 상무는 지난 11일 3635주

를 매입했다.

지방금융지주 경영진이 앞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저평가된 주가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지역경기 부진 가능성 때문에 지방금융의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기준 DGB금융의 주가순 자산비율(PBR)은 0.17배, BNK금융은 0.20배다. PBR은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다. PBR이 기준선인 1보다 낮으면 주식이 저평가된 것으로 해석한다. PBR 1미만은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보다도 낮다는 의미다.

이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가 관련 비판을 미리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DGB금융 주가는 지난 13일 4560원으로 1년전(8400원) 대비 45.7% 하락했고, BNK금융 주가는 4795원으로 전년 동기(6950원) 대비 31.0% 하락했다. 회사 경영진이 손수 나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노력과 책임경영 의지를 강화하는 모습을 주주들에게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경영 현안에 대한 지지를 얻겠다는 포석이다. BNK금융의 주주총회는 오는 20일 열리고, DGB금융과 JB금융의 주주총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